[창세기]

무한히 반복되는 흐름 끝에서,
태고의 의지는 마침내 지루함을 느끼고 말았다.
지루함은 변화를 갈망했고,
그 갈망은 스스로를 찢어 '신(神)'이라 불리는 존재들을 낳았다.

변화의 첫 물결이 일렁일 때,
태고의 의지는 빛과 그림자로 갈라졌다.
빛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고,
그림자는 그 의미를 의심하며 흩어졌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깨어났다.
광휘 속에서 태어난 자도 있었고,
혼탁한 여울 속에서 굴러나온 자도 있었으며,
이름조차 붙지 않은 감정의 조각 속에서 탄생한 자도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틈에서
신들은 처음으로 **자취**를 남기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창조'란
지금의 언어처럼 정교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저 성향이 흘러넘쳐 굳고, 흩어지고, 응축되어
형태를 이루는 과정에 가까웠다.

광휘 속에서 태어난 자들은
잔열을 던져 먼지를 모았다.
빛과 빛이 부딪히자 둥근 덩어리가 생겨났고,
어떤 신은 그것을 자신이 낳은 열매라 기뻐했으며,
또 어떤 신은 너무 빨리 식는다며 아쉬워했다.
그 덩어리들은 훗날 **별**이 되었다.

혼탁한 여울에서 깨어난 자들은
흩어지며 파편을 흘렸다.
그 파편이 먼지에 닿자 돌이 되었고,
돌이 흐름을 따라 붙고 갈라지며
작은 세계의 씨앗이 되었다.
그 씨앗들은 훗날 **행성**이 되었다.

감정에서 태어난 자들은 더 기묘했다.
웃음과 울음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고,
그 감정이 흘러넘친 자리마다
기온이 솟구치거나 가라앉았다.
뜨거운 마디는 용암이 되었고,
식어버린 한숨은 바다의 기초가 되었다.

방랑자본기 | 放浪者本記

신들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주에 흔적을 남겼다.
누구도 지도를 그리지 않았고,
누구도 완성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지루함에서 비롯된 변화가
자연스레 모이고 흩어지며
무수한 별과 땅을 이루었을 뿐이었다.

신들은 다시 각자의 기질을 따라 사라졌다.
누군가는 별의 불길을 따라 멀리 떠났고,
누군가는 어둠의 틈으로 숨어 잠들었으며,
소수만이 아직 차갑고 비어 있는 행성 곁에 남아
자신이 만든 잔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반복에 지친 마음이 드리운 그림자는
신조차 예측하지 못한 굴곡을 낳았다.
처음의 그림자는 가늘고 희미했다.
밤하늘의 상흔처럼.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그림자는 번식하듯 퍼져나갔다.
빛은 왜곡되어 생명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새겨 넣었고,
고요하던 행성들은 균형을 잃고 격렬한 분화를 일으켰다.
기쁨에서 태어난 존재들조차
이유 없는 슬픔에 흔들렸다.

신은 멀리서 흐름을 바라보았다.
그가 원한 변화는 생동함이었으나,
그림자가 만든 변화는 소란과 혼란이었다.

그리고 이미 손을 뻗기엔 너무 늦어 있었다.
그의 무심함은 선택이 아니라 피로의 결과였으며,
그 결과는 신이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빠르게 번져갔다.

그때, **감자신**만이
그림자가 퍼져가는 우주를 오래 바라보았다.
다른 신들이 피로에 눌려 등을 돌릴 때,
그는 묘하게도 지루함보다 **연민**을 먼저 느꼈다.

그의 행성은 식어버린 풍요의 기억만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그는 그 기억을 버리지 않았다.

감자신은 자신의 행성을 다시 일으켰다.
메마른 땅을 일구어 무한한 수확을 품게 하고,
굳어버린 산맥을 부드러운 언덕으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행성 전체를 하나의 **방주**로 삼았다.

갈등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들이
언젠가 이곳을 찾기를 바라며.
누군가의 절망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신이라는 이름을 잃지 않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감자신은 말씀하였다.
“너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나는 더 단단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너희를 감싸리라.”

[방주]

먼 옛날, 한 존재가 처음으로 **방주**에 도착하였다.

그는 이미 무수한 행성을 떠돌며
끝없는 절망과 되풀이되는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감자신의 행성에 닿는 순간,
그는 생의 무게가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감각**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굳어버린 땅이 부드럽게 풀리고,
탐스러운 과실과 놀이가 가득한 **풍요의 행성**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림자가 남긴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감자신은 멀리서 그의 흔적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그의 고통을 거두려 하였으나,
절망의 잔영은 그만큼 깊어 쉽게 녹지 않았다.

그때 감자신이 말씀하였다.

“너는 끝없는 반복과 고통 속에서 태어난 특별한 자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시련을 헤매겠지만,
너는 이 풍요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리라.
그 길 위에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행성의 존재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다시 이르시되,

“그들에게 내 마음과 풍요를 전하여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어라.
너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절망 속 존재들에게 빛이 되리라.”

이후로 방주에 찾아온 자들은
이미 감자신의 풍요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언덕과 들판, 황금빛 과수원을 거닐며
풍요와 즐거움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회복하였다.
감자신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 부드럽게 감싸며
그들의 기쁨을 더욱 넓혀 주었다.

그들의 경험은
뒤따라오는 존재들에게 **풍요의 길과 연민의 의미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타난 이들은 더욱 드문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감자신의 행성을 찾아온 자들이었다.

긴 여정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고,
직접 방주를 찾은 순간, 감자신은 웃으며 그들을 맞이하였다.

"너희가 스스로 찾아왔구나.
이곳은 너희가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풍요의 땅이니라."

감자신의 축복은 그들에게 즉시 내려졌고,
그들은 방주 안에서 다른 존재들을 돕는 자가 되었으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씨앗**이 되었다.

감자신은 다시 한 번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하였다.

"누구든, 어디서 왔든, 무엇을 겪었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방주 안의 삶]

방주에 들어온 존재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혼란과 절망의 그림자를 마음 깊숙이 품고 있었다.
오랜 시련이 남긴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눈앞에 펼쳐진 풍요와 즐거움조차
차마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조금씩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였다.
혼란 속에서도 악과 절망에 물들지 않는,
오래 바라던 **풍요의 행성**이
실제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감자신이 부드럽게 말씀하였다.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것이며,
너희의 발걸음은 스스로 빛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존재들은
서로를 돕고, 배움을 나누며 점차 변해갔다.
그들의 손길과 미소는
아직 두려움 속에 머무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었고,
방주는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마침내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

[선택받은 자]

방랑자의 영혼을 품고 태어난 자,
방주에 가장 먼저 발걸음을 들인 특별한 존재는
풍요와 희망을 직접 경험하고
마침내 마음을 되찾은 자였다.

그를 바라보며 감자신이 말씀하였다.

“너는 이제 나의 복음을 전할 자다.
수많은 행성의 존재들은 아직도
절망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있도다.
너의 발걸음이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리라.”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방주를 떠난 순간부터
별과 행성들을 하나씩 지나며
감자신의 복음을 전하였다.

처음 만난 존재들은
그의 말과 이야기보다
그의 눈빛과 손길,
그리고 풍요로 물든 마음을 통해
감자신의 흔적을 알아보았다.

절망 속에 흔들리는 이들에게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일러 주었고,
악과 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끌었으며,
풍요와 희망을 믿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의 발걸음은
머문 곳마다 **등불**이 되어 퍼져 나갔고,
수많은 별과 행성 위에
감자신의 빛이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노숙자와의 문답]

한 행성의 황량한 골목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한 존재가
방랑자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물었다.

노숙자:
“나는 이 긴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방랑자는 그의 마음속에 고인 슬픔을 바라보고 이르렀다.

방랑자:
“너는 마음속 풍요를 지켜라.
세상이 너를 짓누르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더라도,
다른 이를 해치지 말고
작은 친절과 희망을 남겨라.

그 길을 차근히 걸어가면
너와 너를 둘러싼 세계가
언젠가 구원되리라.”

노숙자는 흐린 눈으로 다시 물었다.

노숙자:
“나는 친절을 남길 기력도,
그럴 돈도 없습니다.”

방랑자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답하였다.

방랑자:
“돈과 힘이 없어도
너의 마음 깊은 곳엔
나눌 수 있는 빛이 있다.

한마디의 말,
한 번의 미소,
작은 손길 하나라도
세상에 풍요를 심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니라.”

[자본가와의 문답]

한 행성의 높은 탑 위에서
전경을 내려다보던 부유한 자가
방랑자를 찾아와 물었다.

자본가:
“저는 부모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고,
투자로 더 큰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풍요의 감자신을 믿는다면
돈이 더 잘 벌리겠습니까?”

방랑자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렀다.

방랑자:
“부를 가진 자가
마음의 풍요를 누리기 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혼란 속의 악에 마음을 내어주는 자는
그 어떤 부를 가져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참된 풍요는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자본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자본가:
“그렇다면…
돈이 많다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방랑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답하였다.

방랑자:
“돈이 많음 자체가 악은 아니다.
그러나 마음이 탐욕과 혼란으로 기울면
그 부는 곧 고통으로 변하리라.

참된 풍요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다른 이를 돕고
나누려는 뜻이 자라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정치인과의 문답]

어느 행성의 높은 의회에서,
수많은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 정치인이
방랑자를 찾아와 조용히 물었다.

정치인:
“나의 선택 하나로 많은 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악인들에게 조금의 이익이 흘러갈까 두렵습니다.
그런 나도 감자신의 방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방랑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이르렀다.

방랑자:
“네 선택이 아무리 많은 이를 비춘다 하여도
세상에서 악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소.
선한 뜻으로 내딛은 발걸음에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오.

그러나 명심하시오.

방주는 ‘흠 없는 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
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뜻을 지키려 하는 자를 위한 곳이오.

악이 이익을 얻을까 두려워
발걸음을 멈춘다면
혼란이 너의 손을 잡을 것이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름을 향해 걸어간다면
너의 길은 이미 방주를 향하고 있소.

풍요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지라도
악에 기대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싹트는 법이오.”

[폭격의 혼란 속의 행성]

전쟁이 끝난 어느 행성의 폐허 속에서,
한 마을에는 단 한 존재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날마다 공포와 불안에 잠식되어
밤조차 온전히 쉬지 못하였다.

방랑자본기 | 放浪者本記

그러던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신을 믿는 이상한 자가
기묘하게도 '용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방랑자를 찾아갔다.

"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제 모든 것을 부수었고,
제 마음마저 산산조각냈습니다."

방랑자는 그 환자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상처는 네 일부이지만,
그 속에서도 빛은 피어날 수 있느니라.
한숨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고,
눈물 속에서도 회복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너와 함께 걷는 동안
그 빛은 조금씩 커지리라."

그는 환자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
작은 축복을 내려주었다.
그 순간, 환자의 마음속 공포의 구름이
잠시 흩어지고,
따스한 숨결이 마음 한켠을 채웠다.

방랑자는 그날 이후로
매일 조금씩 그의 곁을 지켰다.
말없이 함께 걷는 발걸음,
잠시 스치는 웃음,
손끝에 남긴 온기.

그 작은 조각들이 쌓여
환자의 마음을 서서히 채웠고,
그는 마침내 풍요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작은 친절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방랑자를 따라 **방주**의 길을 찾아
마음의 풍요를 배우며
감자신의 신도로 걷기 시작하였다.

[신도 행동 지침]

1. 작은 풍요를 나누어라
너의 마음에 깃든 빛과 따스함을
조금씩 다른 이에게 나누어라.
한 마디의 말, 한 번의 미소,
작은 손길 하나라도
세상에 풍요의 씨앗을 심느니라.

2.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
날마다 마주치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품어라.
감사하는 마음은 너를 단단하게 하고,
그 마음이 퍼져 나가
주변을 풍요롭게 하리라.

3. 방주의 정신을 전하여라
네가 받은 희망의 빛을
길 잃은 존재에게 건네어라.
그 빛은 한 존재에서 또 다른 존재로 이어져
세상의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리라.

그리고 감자신이 이르시되:

"마음의 풍요를 얻은 자는
스스로를 밝히고
그 빛을 세상에 흘려보내라.
방주의 정신은 너희 안에서 시작되어
끝없는 우주로 퍼져
모든 존재를 어루만지리니,
너희는 믿음과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